

어휘의미망에 대한 인식과 사전의 구성

최 경 봉*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어휘 관계망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국어사전의 미시구조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계열적 관계망 정보의 반영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분류학적 관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계 차원의 확장 문제를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위계적인 분류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활용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어휘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결합적 관계망 정보의 반영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어휘의 부류에 따른 어휘 간 상호 선택 양상과 더불어 개별 어휘 간의 상호 선택 패턴을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결합 관계 양상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은유적 개념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어휘의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사전의 의미 항목 간 연관성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다의 항목의 관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은유 표현에서 근원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와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의 관계망을 포착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주제어] 결합관계, 계열관계, 다의어, 어휘 의미망, 언어 관계, 은유 관계망

목 차

I. 머리말	IV. 은유적 개념화를 통한 관계망의 형성과 사전
II. 계열적 관계망으로서의 어휘의미망과 사전	V. 결 론
III. 결합적 관계망으로서의 어휘의미망과 사전	

I. 머리말

본고에서는 어휘의미망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국어사전의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¹⁾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언어사용자가 인식하는 어휘의 관계망 정보²⁾를 국어사전에 어떻게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kbchoi@wku.ac.kr

반영하여 기술할 것인지로 귀결될 것이다.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실천적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하였지만, 근대 이후 편찬된 언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어휘의미망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사전 편찬에서 중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³⁾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어 어휘의미망을 구축할 때 국어사전의 뜻풀이 및 관련어 정보를 활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접근이었다.⁴⁾

그런데 자연언어 처리에 활용하기 위한 어휘의미망의 구축은 기존 언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상 문제점을 드러냄⁵⁾과 동시에 언어사전의 혁신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혁⁶⁾은 “미래의 사전과 어휘의미망은 물리적인 대상으로서의 사전, 전자화된 사전,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국립국어원, 2009)⁷⁾과 필모어(C. J. Fillmore)의 ‘프레임 망(FrameNet)’에 기대어 새로운 사전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

이처럼 언어사전의 편찬과 어휘의미망의 구축이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면, 어휘의 관계망에 대한 언어사전의 기술 내용이 어휘의미망에 반영되고, 어휘의미망 구축의 성과가 언어사전의 어휘 관계망 정보를 정교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휘의미망 구축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언어사전의 변화는, <우리말샘>에서 볼 수 있듯이, 관련어 정보를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언어사전의 구조적 특성상, 어휘 관계망 정보를 정교화하는 것은 관련어를 체계화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사전의 미시구조 전반에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전의 미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고의 논의 대상을 어휘 의미를 규정하고 구획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사전의 미시구조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어휘의미망과 관련한 그간의 언어학적 논의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어휘의미망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의 기술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휘의미망 정보는 계열적

- 1) 어휘의미망이 어휘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망이란 점에서 음운 교체나 형태론적 작용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어나 능동사와 피동사 등과 같은 통사적 특성에 따른 관계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 2) ‘언어사용자가 인식하는 어휘의 관계망 정보’를 구체화하는 논의는 어휘의미망 관련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기존의 어휘의미망 관련 연구를 사전 기술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 3) 근대 이후의 사전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 제작된 사전에서도 어휘의미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회류(字會類) 및 물명류(物名類)는 위계적 분류체계의 분류어휘집으로, 분류어휘집의 체제는 어휘의미망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식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 울산대에서 개발한 사용자 어휘지능망(U-WIN)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 구분하는 어휘 의미를 기본 구성단위로 삼았으며, 사전의 정의를 비롯한 각종 어휘 정보를 통해 중심어 및 의미 관계를 추출하여 어휘의미망을 구축하였다.
- 5) 어휘의미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언어사전의 기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는 김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어 정보와 어휘 관계 기반 사전 기술」, 『한국어어미학』 24, 2007, 23~50쪽; 옥철영, 「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의 개념과 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17: 3, 2007, 27~50쪽; 차준경·임해창, 「어휘의미망의 형태 의미 관계 설정 - 국어의 사전 명사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165~191쪽 등이 있다.
- 6) 이동혁, 「사전과 어휘의미망에서의 의미 기술」,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12쪽.
- 7)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은 옥철영,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 확장』, 국립국어원, 2009 참조.

관계망과 결합적 관계망으로 구분⁸⁾하여 살펴볼 것인데, 계열적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은 Ⅱ장에서, 결합적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은 Ⅲ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은유적 개념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망에도 주목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사전의 의미항목 간 관계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Ⅱ. 계열적 관계망으로서의 어휘의미망과 사전

1. 분류학적 관계망의 한계와 관계 차원의 확장

1.1. 명사의 분류체계와 사전의 기술

어휘의 존재론적 분류체계는 분류학적 관계(taxonomic relation)에 기반하는 만큼, 어휘의 분류체계가 언어 사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어휘의미망의 구축에서는 의미 속성에 따른 다양한 관계를 분류체계에 반영하여 다차원적 어휘의미망을 구축하는 문제를 고민해 왔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명사의 기능적 관계(functional relation)를 명사의 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명사가 복수의 의미부류에 포함될 수 있음을 뜻한다.

(1) 분류학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

ㄱ. 보리

분류학적 : 구체물 - 생물 - 식물 - 풀

기능적 : 구체물 - 자연음식물 - 곡식

ㄴ. 사과

분류학적 : 구체물 - 생물 - 식물 - 열매

기능적 : 구체물 - 자연음식물 - 과일

위의 분류는 언어 외적인 개념을 분할하여 체계화한 결과이지만, 언어 외적 개념이 분할되는 층위가 달라지면서 분류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풀’과 ‘열매’는 ‘식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반면, ‘곡식’과 ‘과일’은 사물의 활용 영역과 관련하여 ‘자연음식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층위의 차이는 문맥 내에서의 선택 제약과 같은 해당 어휘의 의미작용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는 (1)의 어휘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 이는 어휘 의미를 계열적 의미와 결합적 의미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어휘의미론의 방법론에 따른 것이다.

(2) '보리'와 '사과'에 대한 『표준』의 기술

ㄱ. 보리

[식물] 벼과의 두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미터 정도이고 곧고 속이 비었으며, 마디가 길다. (...) 알이 껍질에서 잘 떨어지는지에 따라 쌀보리와 겉보리로, 파종 시기에 따라 가을보리와 봄보리로 나눈다. (...)

ㄴ. 사과

사과나무의 열매.

(2)의 예시를 보면, 계열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 양상이 국어사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2-1)의 경우는 그 활용 영역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2-2)의 경우는 그러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벼'와 '쌀'의 기술 내용과 비교할 때 분명해진다.

(3) '벼'와 '쌀'에 대한 『표준』의 기술

ㄱ. 벼

- ① 식물 벼과의 한해살이풀. 줄기는 높이가 1~1.5미터이고 속이 비었으며, 마디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긴 선 모...
- ② 「1」의 열매. 가을에 영과(穎果)로 익는 것을 이르며, 이것을 찢은 것을 '쌀'이라고 한다. 쌀은 주식으...

ㄴ. 쌀

- ① 벼에서 껍질을 벗겨 낸 알맹이.
- ② 멥쌀을 보리쌀 따위의 잡곡이나 잡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③ 벼과에 속한 곡식의 껍질을 벗긴 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쌀, 보리쌀, 좁쌀 따위가 있다.

위의 기술 내용을 보면, 분류학적 관계와 기능적 관계에 대한 구분이 분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기술 내용을 기반으로 편찬된 <우리말샘>에서는 (3-1①)의 상위어로 '벼과'를 (3-1②)의 상위어로 '곡물'을 제시하고 있으며, (3-2①)의 상위어로 '곡물'을, (3-2②)의 상위어로 '쌀'을, (3-2③)의 상위어로 '곡물'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2)의 어휘에 대한 <우리말샘>에서의 기술 내용을 보면, '보리'의 상위어로는 '벼과'만을 '사과'의 상위어로는 '과일'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어사용자의 분류 의식이 국어사전 기술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분류 의식을 반영하여 개념의 분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을 세우고 이를 국어사전의 의미 기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 논의는 참고할 만하다.

(4) 인간명사의 의미 분류⁹⁾

[-내포] 철수, 영희, 순희

[+내포] - 형상 : 사람, 인간, 여자, 남자, 아가씨, 총각, 이즘마, 노인, 젊은이

- 구성 : 부자, 천재, 바보, 미인, 영세민

- 기능 : 선생님, 의사, 가수, 연기자, 국회의원, 시장, 군수, 대통령, 장관, 흡연자, 행인, 보행자, 환자, 제자, 일꾼, 지게꾼

- 작인 :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 누나, 동생, 부하, 상관

위에서 보인 의미 분류 방식은 [-내포] 자질을 기준으로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를 구분한 후, 생성어휘론에서 속성 구조를 기술할 때 사용하였던 네 가지 작용역(형상, 구성, 기능, 작인)을 틀로 삼아 ‘인간’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를 분류한 것이다. 이때 각 작용역에 할당된 명사들은 해당 작용역에 ‘의미적 중점’을 두는 명사들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기능’에 포함하여 분류한 것은 ‘선생님’이라는 어휘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어휘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개념이 분할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선생님’의 의미적 중점은 ‘기능’에 있지만, ‘선생님’을 ‘나이가 어지간히 든 사람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표준』)’로 사용하는 것은 ‘선생님’의 의미 속성에서 ‘형상’의 작용역이 활성화된 결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용역의 활성화에 따른 개념의 분할 원리를 (1)에 제시된 어휘들에 적용할 경우, ‘형상’의 작용역에 의미적 중점이 있는 ‘사과’는 ‘열매’로 분류되지만, ‘구성’의 작용역이 활성화될 경우엔 ‘나무’, ‘기능’의 작용역이 활성화될 경우엔 ‘과일’로 분류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앞에 제시한 사전의 의미 기술에 반영할 경우 의미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다차원적 분류 의식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한 ‘기능적 관계’는 ‘형상, 구성, 기능, 작인’이라는 네 가지 작용역에 따라 세분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언어사용자의 분류 의식을 반영하여 어휘의 관계망을 정치하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틀이 모든 명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사용자의 분류의식은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피[穞]’에 대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의 풀이

[식물] 벼과에 속한 한해살이풀. 높이는 1미터 정도이며, 잎은 벼와 비슷하여 좁고 길다. (...)

환경 적응성이 커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므로 옛날에는 구황 작물로서 많이 재배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그 재배를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피’는 분류학적으로는 ‘풀’, 기능적으로는 ‘곡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밑줄 친 부분은 ‘피’가 실질적으로 ‘곡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보리, 벼, 사과’에 대한 분류 의식과 ‘피’

9) 최경봉, 『어휘의미론 - 의미의 존재 양식과 실현 양상에 대한 탐구』, 한국문화사, 2015. 110~112쪽.

에 대한 분류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국어사전의 기술에서 중요해질 것이다.

이처럼 분류학적 차원을 넘어서는 분류체계는 어휘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언어사용자의 인식을 설명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자의 달라진 분류의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작용역의 역할은 부분전체의 관계망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6) 부분어에 대한 『표준』의 풀이

- ㄱ. **다리**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맡아 한다.
- ㄴ. **배**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 ㄷ. **손잡이** 손으로 어떤 것을 열거나 들거나 붙잡을 수 있도록 덧붙여 놓은 부분.
- ㄹ. **가지** 나무나 풀의 원줄기에서 뻗어 나온 줄기.
- ㅁ. **강변** 강의 가장자리에 잇닿아 있는 땅. 또는 그 부근.

위의 예처럼 부분체를 가리키는 명사는 대체로 ‘공간 부분’(강변)과 ‘개체 부분’(다리, 배, 손잡이, 가지)으로 나뉜다. 이들은 전체를 가리키는 명사와의 관계 속에서 ‘형상’과 ‘기능’에 따라 개념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위의 예에서 제시한 사전의 뜻풀이에서도 이러한 분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6ㄱ)은 ‘형상’과 ‘기능’, (6ㄴ)은 ‘형상’과 ‘구성’, (6ㄷ)은 ‘기능’, (6ㄹ)과 (6ㅁ)은 ‘형상’에 따른 개념의 분할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분어’를 ‘기능적 부분어’(다리, 손잡이), ‘형상적 부분어’(다리, 가지, 배, 강변), ‘구성적 부분어’(배)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 의식을 사전의 의미 기술에 반영한다면 (6ㄱ, ㄴ)은 다음과 같이 재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6ㄱ) **다리** ①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②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맡아 하는 신체의 부분.

(6ㄴ) **배** ①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②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

위에서 제시한 의미 분할의 타당성은 ‘안경의 다리’나 ‘배가 부른 마대 자루’와 같은 비유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안경의 다리’와 ‘배가 부른 마대 자루’에서 ‘다리’와 ‘배’의 의미는 (6ㄱ)①과 (6ㄴ)①의 의미를 기반으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6ㄴ)이 『고려대』의 의미 분할 방식과 같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분류 의식을 반영하는 의미 분할 방식의 적절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국어사전에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¹⁰⁾ 아래와 같은 복합적 의미의 표제어에 대한 의미 기술 상황도 의미 분

10) 『고려대』에서는 ‘배’의 경우 (6ㄴ)처럼 기술하였지만, ‘다리’의 경우는 『표준』과 같이, 즉 (6ㄱ)처럼 기술하였다.

할 방식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한다.

(7) 복합적 의미를 지닌 표제어에 대한『표준』의 의미 기술

ㄱ. **간식** 끼니와 끼니 사이에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ㄴ. **식사** 끼니로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ㄷ. **경비** ①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

② 경비의 임무를 맡은 사람.

위에서 ‘간식’, ‘식사’, ‘경비’ 등은 ‘구체물’과 ‘사건’이란 두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 어휘적 관계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복합적 의미를 분할하여 기술해야 한다.¹¹⁾ 따라서 어휘의미망 기반의 언어사전을 지향한다면, (7ㄱ, ㄴ)은 (7ㄷ)의 기술 방식을 취해 재기술할 필요가 있다. (7ㄷ)의 기술 방식을 취했을 때, ‘간식’과 ‘간식하다’, ‘경비’와 ‘경비하다’의 관계도 분명하게 기술할 수 있다.

1.2. 동사의 분류체계와 사전의 기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계열적 관계망은 주로 명사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이는 계열적 관계망의 특성이 사물의 본질과 작용에 대한 체계적 인식을 보여주는 명사의 분류체계와 가장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사 어휘와 타 품사 어휘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황순희가 언급했듯이¹²⁾, 동사의 경우는 의미자질에 근거한 동사 고유의 분류가 가능함과 동시에 개별 동사가 갖는 논항 유형과의 관계에 의한 비본질적 분류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동사와 관련한 모어화자의 분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열적 관계만이 아니라 결합적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계열적 관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사에 대한 본질적 분류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래 제시한 동사의 상위온톨로지는 동사의 존재론적 분류체계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8) 동사의 분류 체계¹³⁾

상황 유형(상적 특성) : 기동, 과정, 결과, 완성

상황 성분(사건 유형)

사건	변화	양의변화
		질의변화
		소유변화
		존재변화
		장소변화

11) 차준경·임해창, 앞의 논문, 161~187쪽.

12) 황순희, 「인지동사의 의미분류와 어휘의미망 표상」, 『언어연구』 26: 2, 2010, 374쪽.

13) 최경봉·도원영,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상위온톨로지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28, 2005, 238쪽.

작용 자연작용
 상호작용
 정신작용
 지각작용

위에 제시한 체계는 이글스 리포트와 유로워드넷에서 제시된 동사 관련 의미자질들을 ‘상황 유형’과 ‘상황 성분’으로 나누어 체계화한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는 (4)에서처럼 명사의 기본 분류체계를 분류학적 관계망에 기대어 설정한 후 여기에 작용역에 따른 관계를 추가하여 분류체계를 정교화한 것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8)의 분류체계는 동사에 대한 의미 기술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만들다’를 예로 들어보면, ‘만들다’의 ‘상황 유형(상적 특성)’은 ‘완성’에 해당하고, ‘상황 성분(사건 유형)’은 ‘존재변화’를 나타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 속성은 사전의 뜻풀이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9) ‘만들다’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 ①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재료나 소재 따위에 노력이나 기술을 들여 이루어 내다.
- ②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지위나 상태로) 되게 하다.
- ③ (어떤 것이 다른 것을 어떠한) 되게 하다.
- (…)
- ⑨ (사람이 기회나 시간 따위를) 일부러 내다.
- ⑩ (사람이 문제가 될 말이나 일 따위를) 꾸며내거나 일으키다.
- ⑪ (사람이 흠집이나 상처 따위를) 생기게 하다.

(9)의 의미항목 ①~③을 보면 ‘이루어 내다’와 ‘되게 하다’라는 풀이말은 ‘만들다’의 ‘상적 특성’이 ‘완성’에 해당되고, 그 ‘사건 유형’이 ‘존재변화’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미항목 ⑨~⑪은 ‘상적 특성’은 ‘기동’이나 ‘결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만들다’가 기본적으로 ‘완성/존재변화’라는 존재론적 속성을 지니지만, 문맥 상황에 따라 ‘기동’과 ‘결과’의 상적 특성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상적 특성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은 ‘사건’이 기본적으로 ‘기동, 과정, 결과’의 구성을 지니면서 문맥 상황에 따라 특정한 상적 특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동, 과정, 결과’가 모두 존재론적 속성의 일부라는 점에서, 상적 특성의 실현 양상에 따라 의미를 분할하고, 분할한 의미의 계열적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면, 동사의 존재론적 속성에 기반한 분류체계는 계열적 관계망을 정치하게 구성하는 토대가 되고, 사전의 뜻풀이를 정교화하는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열적 관계망을 정치하게 구축하는 것은 관계망 정보로 정의적 정보를 대체하는 기계가독형 전자사전을 구축하는 과제와 관련되는 만큼, 존재론적 속성에 따라 의미를 분할하는 것은 계열적 관계망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2. 계열적 관계망의 이원성과 사전의 기술

앞 절에서는 다차원적인 분류 의식을 반영하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일정한 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위계적인 단일 분류체계로는 하나의 사물에 대한 개념화 양상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개념 분할을 위한 틀을 제시하더라도 이들을 위계적 체계 내에서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10) '나무'에 대한 『표준』의 기술

- ①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
- ② 집을 짓거나 가구, 그릇 따위를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는 재목.
- ③ 빨감이 되는 나무.

위에서 '나무'는 분류학적으로 '식물'의 하위어이지만, '인공물'의 '자재'나 '연료'에 포함되기도 한다. '나무'의 개념이 '자재'와 '연료'의 부류로 개념이 분할되는 것은 '나무'의 속성을 나타내는 작용역 중 '기능'이 활성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 의식은 언어 간 어휘장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1) <나무>의 어휘장

한국어	나무	나무	나무(빨나무)
영어	tree	wood	wood(firewood)
스페인어	árbol	madera	leña

위의 어휘장을 비교해 보면, <나무>의 개념장이 '식물/목재/빨감'으로 분할되며 한국어의 어휘장에서는 하나의 어휘 '나무'가 이 개념장을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어휘장에서 개념의 분할 양상을 고려하면,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류의식은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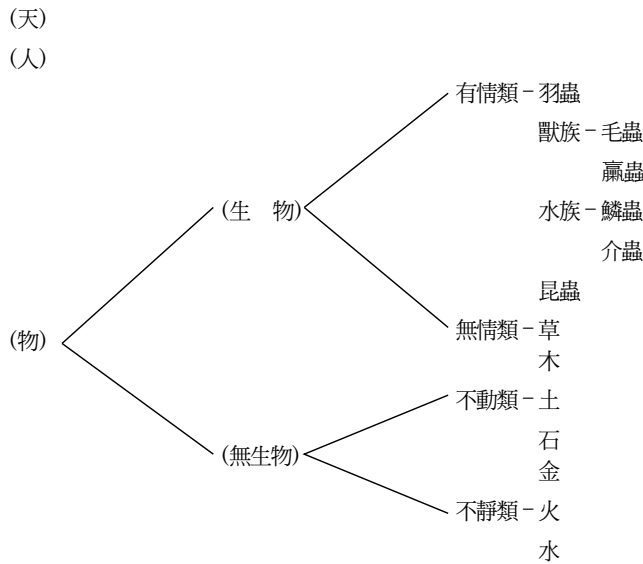
그러나 '나무'의 활용 영역을 '자재'와 '연료'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류의 체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맥락에 따라 어휘가 나타내는 사물의 활용 영역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활용 영역의 확장 양상을 모두 분류 의식의 발현으로 보고 이를 사전의 의미 기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간의 온톨로지 구성 논의에서 이원적 온톨로지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로워드넷의 경우 본질적이고 언어보편적인 개념체계를 표시하는 '상위 온톨로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물의 활용 영역과 관련되는 '영역 온톨로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또한 통사적 기준을 어휘의 분류 기준으로 삼는 대상부류 이론에서도 '신의미자질'과 '대상부류'를 별개의 차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상위온톨로지와 영역온톨로지를 구분하는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다.¹⁴⁾

14) 최경봉·도원영, 앞의 논문, 232쪽에서는 '상위 온톨로지'와 '영역 온톨로지'의 이원적 분류체계를 제안하면서, 상위 온톨로지의 구성 원칙으로, '구성 의미자질의 조합을 통해 사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상위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의

의미자질의 체계로 구성된 상위온톨로지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분류어휘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물명고』의 어휘망 구성에서 상하위 온톨로지에 대한 구분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12) 『물명고』의 분류체계¹⁵⁾



※ ()안에 들어간 말은 물명고의 분류체계를 고려할 때 상위 분류 자질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해당 논문에 첨가한 것임.

위에 제시한 분류체계는 존재론적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위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의 자질들은 표제어에 해당하는 어휘들과 위계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 예로 위 분류체계의 ‘우충(羽蟲)’ 항에 배치된 어휘들을 보면 ‘유정류’라는 분류항과 이 분류항에 포함된 어휘 간 위계성이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우충(羽蟲)’의 부류에 포함된 어휘

- ㄱ. ‘봉황(鳳凰)’, ‘치(雉, 꿩)’, ‘백한(白鷗)’, ‘이계(鶻鷄)’, ‘반작(鶻雀)’, ‘계(鷄, 닭)’ 등.
- ㄴ. ‘모(毛)’, ‘미(尾, 꼬리)’, ‘미파(尾把, 미우)’ 등.
- ㄷ. ‘난(卵, 알)’
- ㄹ. ‘과(戈, 주살)’, ‘위(罽, 새그물)’, ‘부(罽, 덩치그물)’, ‘견(絹, 울모)’, ‘활구자(活扣子, 울모고)’, ‘협자취(挾子鬚, 창고동)’, ‘협자구(挾子口, 창고폐)’ 등.

미자질 간의 체계적 관련성을 고려할 것’, ‘상위 온톨로지와 영역 온톨로지는 위계적 관계가 아니지만, 이 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위 온톨로지를 구축할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15) 최경봉, 『물명고(物名考)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의미학』 17, 2005, 31쪽.

- ㄹ. ‘알단(嘎蛋, 알갸다)’, ‘하단(下蛋, 알낫타)’, ‘비(飛, 날다)’, ‘명제(鳴啼, 울다)’, ‘혁(軋, 골다)’ 등.

위에서 (13ㄱ)은 ‘우충’의 하위어, (13ㄴ)은 부분어, (13ㄷ)은 ‘우충’으로부터 얻는 산출물, (13ㄹ)은 새 사냥과 관련된 도구, (13ㅁ)은 새의 행위 및 산출물의 상태에 해당하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새’와 연관된 관련어들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모두가 ‘새’의 상위 부류인 ‘유정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원적 분류체계는 존재론적 분류체계를 정립함과 동시에 어휘망의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13)에 제시된 관련어들은 ‘새’와 관련된 의미영역의 어휘로서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의미영역의 어휘로도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3ㄹ)은 ‘새 사냥 도구’라는 점에서 ‘사냥도구’의 의미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사냥’의 의미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상위 온톨로지’와 ‘영역 온톨로지’의 이원적 관계망을 전제하면 분류학적 위계에 구애 없이 어휘적 관계망을 폭넓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포착한 어휘적 관계망은 사전의 관련어 정보를 다양화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 어휘의 문맥 내 의미작용을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14) ‘나무’의 언어 사용 양상

- ㄱ. 할머니가 황칠나무를 끓여 먹으라고 보내주셨어요.
 ㄴ. 나무를 태워 난방을 하는 구들 황토방
 ㄷ. 불장난을 하다가 산의 나무를 태웠다.

위의 예에서 (14ㄱ)의 ‘나무’는 ‘자연음식물’보다는 ‘약재’에, (14ㄴ)의 ‘나무’는 ‘연료’에, (14ㄷ)의 ‘나무’는 ‘연료’보다는 ‘식물’에 해당할 것이다. 이처럼 맥락에 따라 ‘나무’의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은 ‘분류학적 관계망’보다는 ‘활용 영역의 관계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14ㄱ)의 ‘황칠나무’는 ‘나무’의 하위어로 상위 분류체계의 ‘식물’과 연결되지만, (14ㄱ)의 문맥에서는 ‘약재’의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때, ‘나무’와 ‘끓여 먹다’가 호응하는 의미작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0)에 제시한 사전의 기술 내용을 (14)의 활용 양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사전에서는 ‘나무’의 기능적 관계 중 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의미를 기술한다고 할 수 있다. (10)의 의미 항목 중에 ‘약재’에 해당하는 의미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나무’가 ‘약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지만¹⁶⁾, ‘나무’의 개념을 ‘약재’로는 분할하지 않는 분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⁷⁾ 이는 ‘뽕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이’의 의미 기술에서 ‘연료’의 의미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활용

16) ‘초근목피(草根木皮)’는 한약의 재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초근목피’가 ‘약재’의 하위어로 쓰인다는 것은 ‘나무’와 ‘풀’이 ‘약재’의 관계망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17) ‘나무하다’(뽕감을 장만하다), ‘나무집’(나무로 지은 집), ‘집나무’(집을 짓는 데 쓰는 나무) 등의 복합어는 ‘나무’의 개념이 ‘자재’와 ‘연료’로 분할됨을 잘 보여준다.

영역에서의 관계망은 관습적 분류 의식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사전의 의미 기술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 체계와 별도로 활용 영역에서의 관계망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전의 의미 기술을 정교화하는 데 필요하다.

단일한 분류체계를 채택한 세종 의미부류 체계에서 <교통수단>은 ‘구체인공물’의 하위 부류로 설정되어 있고, 이러한 분류체계는 『표준』의 의미 기술에 반영된다. 그러나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자동차, 택시, 버스, 비행기, 배’ 등에 한정되지 않고 ‘말, 낙타’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의 기술 내용은 사물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교통수단>이라는 부류를 ‘구체인공물’이라는 분류체계의 관계망이 아닌 ‘활용 영역’의 관계망으로 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15) ‘타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ㄱ. **타다**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표준』

cf) **탈것** 자전거, 자동차 따위의 사람이 타고 다니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

ㄴ. **타다** (사람이 탈것을) 올라 몸을 싣다. 『고려대』

cf) **탈것**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가마, 말, 마차,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배 따위가 있다. 『고려대』

‘타다’에 대한 의미 기술을 보면, 『표준』과 『고려대』는 ‘탈것’의 범위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은 ‘짐승’을 ‘탈것’에서 제외시키고 있지만, 『고려대』에서는 ‘짐승’을 ‘탈것’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계적 분류체계에서 ‘탈것’을 ‘구체인공물’로 분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고려대』의 기술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탈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짐승의 부류(말, 낙타 등)를 설정할 수 있고, ‘말, 낙타’를 ‘탈것’으로 분류해 ‘타다’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

(15) ‘타다’의 재기술

① (사람이 탈것을) 올라 몸을 싣다. ♣나는 아침마다 버스를 탄다. /

그는 말을 타고 사냥을 나갔다.

② 사람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목말을 타고 담 너머를 살펴보았다. /

아이가 개의 등에 탔다.

그런데 ‘탈것’에 짐승의 부류를 포함한 『고려대』에서도 ‘말’의 의미를 기술할 때 ‘탈것’의 개념을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16) 『고려대』에 기술된 ‘자전거’와 ‘말’의 뜻풀이 비교

자전거 두 다리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림으로써 움직이게 하는 탈것.

말 포유류 말과(科)에 속한 포유동물.

이는 ‘약재’의 종류에 ‘나무’를 포함하되 ‘나무’에 ‘약재’의 의미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나, ‘뽕감’의 종류에 ‘종이’를 포함하되 ‘종이’에 ‘뽕감’의 의미 항목을 설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처리로 볼 수 있다. 활용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기술하되, 이러한 가능성이 관습적 분류의식에 반영되었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계열적 관계망은 ‘존재론적인 인식 체계로서의 관계망(상위온톨로지)’과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 체계로서의 관계망(영역온톨로지)’을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차원의 관계망을 설정함으로써, 어휘의 관계망을 정교하게 포착하여 사전에 기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앞선 설명에서 살펴봤듯이, 언어사용자가 어휘의 관계망을 인식하는 토대는 탈문맥적인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어휘의미망에 대한 탐구는 논항 관계 및 선택 관계와 같은 결합적 관계망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Ⅲ. 결합적 관계망으로서의 어휘의미망과 사전

1. 어휘 간 상호 선택의 관계망과 사전의 기술

앞 장에서는 명사의 ‘분류학적 관계’와 ‘네 가지 작용역에 따른 속성 관계’에 따라 명사의 관계망을 파악해 보면서, 계열적 관계망의 다차원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적정술어와 관련하여 명사의 의미 부류를 파악하는 논의, 즉 대상부류 이론에서 대상 부류를 파악하는 논의와 관련된다. 특히 대상부류 이론은 어휘 간의 결합 관계 양상을 포착하여 의미 속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 틀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결합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방법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17) ‘사과’와 술어의 결합 관계

- ㄱ. 사과를 먹다
- ㄴ. 사과를 사다/팔다
- ㄷ. 사과를 따다
- ㄹ. 사과를 심다

대상부류 이론에 따르면, ‘사과’는 그것이 함께 결합하는 술어와의 관련 하에 의미부류가 결정되는데, (17ㄱ)의 ‘사과’는 [과일], [음식물의 부류에], (17ㄴ)의 ‘사과’는 [과일], [상품의 부류에], (17ㄷ)의 ‘사과’는 [열매], [식물의 부류에], (17ㄹ)의 ‘사과’는 [나무], [식물의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과 서술어의 결합 관계는 어휘의미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부류는 앞서 살펴봤듯이 ‘사과’의 다의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대상 명사의 기능을 나타내는 서술어들이 각각 대상 명사의 하위 부류를 환기하는 경우도 있다.

- (18) ㄱ. 장군은 다가오는 적군을 칼로 베었다.
 ㄴ. 연필을 깎을 칼이 필요해요.
 ㄷ. 도마 위에 고기를 놓고 칼로 썰었다.

위의 예에서 ‘칼’은 문맥에 따라 무기로서의 칼(18ㄱ), 문방구로서의 칼(18ㄴ), 주방기구로서의 칼(18ㄷ)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의 분류의식에는 ‘무기’, ‘주방기구’, ‘문방구’ 등의 부류가 있고, 각 부류에 따라 ‘칼’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베다, 깎다, 썰다’로 구분된다는 점이다.¹⁸⁾ 그렇다면 머릿속사전에는 ‘물건을 베거나 썰거나 깎는 데 쓰는 도구’라는 ‘칼’의 의미가 ‘무기’, ‘문방구’, ‘주방기구’ 등 도구의 분류체계와 연계되어 저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개념의 어휘들이더라도 그것이 어떤 논항과 선택 관계를 이루는지에 따라 그 부류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상거래’의 의미 영역에서 ‘사다’와 관련한 동사들은 ‘구매하다, 구입하다, 매입하다, 구매하다...’ 등인데, 이 동사들은 그것이 어떤 논항과 함께 선택 관계를 이루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 (19) ‘사다’의 유의어와 유의어에 따른 논항 선택
 ㄱ. 구매하다, 구입하다; 제한 없음
 ㄴ. 매입하다; 주식, 부동산
 ㄷ. 구매하다; 곡식

이상 살펴본 결합 관계 정보는 개별 언어의 언어적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휘의미론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대부분 결합적 의미 관계 정보를 어떻게 포착하여 기술할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합적 의미 관계에서 나타난 분류의식을 사전의 의미 기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어휘의미망의 구축과 관련한 실천적 연구의 흐름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한국어 어휘의미망인 ‘KorLex 2.0’의 경우 한국어 의존적인 정보로 ‘수분류사와 명사 간 공기관계’와 ‘용언의 논항 정보와 선택 제약’ 정보를 구축하였다.¹⁹⁾ 이러한 시도는 어휘 의미 연구에서 결합적 관계가 주목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코퍼스 기반의 통계적 접근으로 포착한 결합적 관계망이 어휘의미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휘의미망의 구축이 결합적 관계에 대한 어휘의미론에서의 연구 성과와 연동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합적 의미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통계적 접근의 성과를 언어사전에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휘의미망의 결합적 관계망 정보를 정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미론에서 주목하는 결합적

18) 베다, 썰다, 깎다 등이 부류에 따라 배타적으로 쓰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칼’이 ‘무기’로 의미화되는 한 ‘깎다’나 ‘썰다’와의 호응은 부자연스럽고, ‘문방구’로 의미화될 때는 ‘베다’나 ‘썰다’와의 호응이 부자연스럽고, ‘주방기구’로 의미화될 때는 ‘베다’와의 호응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관계는 작동(칼: 무기)=베다, 찌르다, 작동(칼: 주방기구)=썰다, 깎다, 작동(칼: 문방구)=깎다 등과 같은 어휘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경봉, 『한국어 단어 단위와 의미-의미 단위의 인지적 실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7, 2017, 89쪽 참조.

19) 이에 대한 설명은 윤애선, 『한국어 어휘의미망 KorLex 2.0-의미 처리와 지식 공학을 위한 기반 언어 자원』, 『한글』 295, 2012, 178~195쪽 참조.

의미 관계 중 기존의 언어사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언어 관계이다. 언어 정보의 체계적인 기술 방안은 기계가독형 전자사전의 구축을 위한 어휘합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적 관계망은 언어사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20) 언어 정보와 관련한 국어사전의 기술

- ㄱ. 짓다: 재료를 들어 밥, 옷, 집 따위를 만든다. 『밥을 짓다. / 아침을 짓다. / 옷을 짓다. / 양복을 짓다. / 누에가 고치를 짓고 있다. / 그는 고향에 기와집을 지었다. 『표준』
- ㄴ. 끓이다: 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 ‘끓다’의 사동사. 『물을 끓이다. / 국을 끓이다. / 차를 끓이다. /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다. 『표준』

(20ㄱ, ㄴ)은 언어의 결합적 구성에 대한 이해와 언어 구성을 이루는 어휘의 계열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을 말해준다. 먼저 ‘짓다’와 ‘끓이다’가 ‘조리어’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하면, ‘짓다’와 ‘끓이다’의 공통점을 의미 기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짓다’와 ‘끓이다’의 언어적 결합에 따라 두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면 (20ㄱ, ㄴ)은 다음과 같이 재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20) ㄱ. 짓다 ① 밥이나 한 끼 음식을 만든다. 『밥을 짓다. / 아침을 짓다. ② 재료를 들어 옷, 집 따위를 만든다. 『옷을 짓다 / 양복을 짓다 / 누에가 고치를 짓고 있다. / 그는 고향에 기와집을 지었다.
- ㄴ. 끓이다 ①액체를 몹시 뜨겁게 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이 솟아오르게 하다. ‘끓다’의 사동사. 『물을 끓이다. / 차를 끓이다. ②국이나 찌개 따위를 만든다. 『국을 끓이다. /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언어 관계를 기술하는 방식의 특징은 언어 관계를 용례로 보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첫째, 용례로 선택되지 않은 언어 정보를 사전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둘째, 결합하는 어휘 간의 제약 및 의존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1) 언어 정보와 관련한 국어사전의 용례

- ㄱ. 거짓말: 『표준』 티무니없는 거짓말. / 그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댄다. / 나는 진찰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모든 사항을 거짓말로 대답했다. 『고려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 언니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보태어 말한다. /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로 실력을 겨루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ㄴ. 사의 : 『표준』 사의를 나타낸다. / 심심한 사의를 표하다.
『고려대』 그녀는 사의의 표시로 나에게 돈을 집어 주었다. / 그의 극진한 태도는 우리의 방문에 대한 사의일 것이다. / 신문에 무게 있는 글을 써 주신 필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 ㄷ. 세금 : 『표준』 세금 계산서. / 세금 납부. / 세금 면제 혜택. / 세금 징수. / 세금을 내다. / 세금을 부과하다.
『고려대』 세금 포탈 / 세금 감면 / 세금을 내다 / 세금을 거두다 / 정부의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 내수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잘 걷히고 있다.
- ㄹ. 결정 : 『표준』 결정을 내리다 / 결정을 보다/ 결정을 짓다 / 결정이 나다 / 결정에 따른다. / 결정을 짓다
『고려대』 월남 파병은 이미 결정이 났다. / 그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었다. /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 오늘 내로 결정을 내려 주면 고맙겠구나.

(21ㄱ, ㄴ)을 보면, ‘새빨간 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심심한 사의’ 등과 같이 관습적인 연어 관계의 등재 여부가 사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1ㄷ)의 경우, 두 사전에서 다양한 용례가 제시되었음에도 ‘무거운 세금’, ‘가벼운 세금’ 등과 같은 연어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ㄹ)에서는 ‘결정’이 ‘내리다’와 결합하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연어 관계의 전모를 보여줄 수 없는 이상, ‘결정’이 ‘내리다’의 유의어인 ‘떨어트리다’나 반의어인 ‘올리다’와 결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용례의 제시와 별도로, 연어 정보의 관계망을 최대한 보여주면서 관계의 양상을 설명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간 국어사전에서 이러한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종이사전 편집 체제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어사전과 달리 세종 전자사전에서는 다양한 어휘합수를 만들어 연어 관계의 양상을 기술한 바 있다.²⁰⁾ 기계가독형사전에서 연어 관계 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웹사전이 종이사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능성에 주목하면, 사전의 기술 내용을 확장하기 위한 웹사전의 다양한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네이버 영어사전 홈에서 영어 단어를 검색하면, 기존 영한사전의 내용에 ‘학습 정보’²¹⁾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중 연어 관계 정보는 *Oxford Collocations Dictionary for students of English*(2009)에서의 기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에서 연어사전은 모두 8,946개의 연어(다의어 항목까지 포함하면 9,521개)를 상세 기술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어휘합수가 기술되지 않은 것은 3,927개로 전체 연어 목록 중에서 41%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미 작용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어휘합수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해, 『언어 연구의 의미론적 함의-목록과 경향 사이에서』, 『국어학』 68, 2013, 198-199쪽 참조.

21) 학습 정보는 ‘유의어’, ‘문형/함께 쓰이는 말’, ‘함께 사용되는 단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tax'의 언어 관계에 대한 사전의 기술

함께 사용되는 단어

[영사]로 tax이(가) 사용될 때

형용사

high, low | direct, indirect | flat | basic-rate, higher-rate(both BrE) | progressive, redistributive | regressive | stealth(BrE) | windfall | back(informal) | council(BrE), poll(esp. BrE) | federal, local, national, state | capital, capital gains, death(AmE), dividend(AmE), estate(AmE), income, inheritance, land, payroll, profits, property, social-security, wealth | consumption, luxury, purchase(BrE), sales, value added(= VAT)(BrE) | personal | company(BrE), corporate, corporation | car, road(BrE), vehicle | carbon, energy, fuel, gas(AmE), gasoline(AmE), petrol(BrE) | excise, import | environmental, green

a windfall tax on the profits of the last few years

The tax office demanded 'in back taxes.

It's time to renew your car tax.

동사 + tax

pay | owe | charge, impose, introduce, levy, put | collect | deduct | calculate | increase, put up, raise | cut, keep down, lower, reduce | abolish, repeal | eliminate | overpay | claim back, reclaim(BrE) | offset sth against, set sth off against, write sth off against(all BrE) | avoid, escape | evade

The government may put an indirect tax on books.

이와 같은 체제는 복수의 사전을 연결해 놓은 것이지만, 한 표제어의 정보로 제시되면서 기존 사전의 내용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웹사전의 구조를 모색하는 데 참조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언어 관계 구성을 사전의 의미 기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어휘합수를 정교하게 설정하여 합수 정보를 기술하거나 결합 구성을 확장된 의미 단위로 기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언어 관계 연구는 통계적 접근법을 강화하는 경향을 띤다. 이러한 경향은 언어 관계의 양상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부각된 개념이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이다. 의미적 운율은 공기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선호도는 코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inclair는 확장된 의미단위의 개념을 '언어(collocation)', '연접(colligation)',²²⁾ '의미적 선호(semantic preference)', '의미적 운율(semantic prosody)' 등의 네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한 바 있는데²³⁾, 이 개념들은 단어의 결합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면서 단어 결합 구성을 포괄하는 의미가 발생함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다. 즉 '의미적 선호'나 '연접'은 단어 결합의 패턴에 작용하고, '의미적 운율'은 그러한 패턴에서 포괄적 의미가 발생하는 데 작용한다.

(23) ㄱ. 그의 발명품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쓸모가 없었다.

ㄴ.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ㄷ. 사람을 모함해도 유분수지 왜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ㄹ. 우리 마을은 올해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다.

ㅁ. 나는 집을 나온 다음 편한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다.

위의 예에서 (23ㄱ, ㄴ)이 '전혀', '절대로' 등처럼 애초에 중립적인 어휘들이 특정 문맥에서의 관습적 결합

22) 특정 어휘나 의미의 단위가 특정한 문법 범주, 즉 부정, 시제, 상 등과 관습적으로 공기하는 것.

23) Sinclair, J. M.,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Routledge, 2004, pp.24~48.

패턴에 따라 부정의 뜻을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면, (23ㄷ)은 ‘유분수’라는 단어의 의미적 선호를 보여준다. 즉, ‘유분수’가 포함된 구성은 “〈부정적 행동〉(어)도 유분수지”의 패턴을 보이면서, 아무리 부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경향성은 언어사전에서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24) ‘전혀, 절대로, 유분수’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 ㄱ. 전혀 부정어와 함께 쓰여, ‘절대로’,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ㄴ. 절대로 ①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② [일부 단어와 함께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 ㄷ. 유분수 [주로 ‘-어도 유분수이지’의 구성으로 쓰여] 마땅히 지켜야 할 분수가 있음.

(23ㄷ-ㄴ)에서는 단어 결합의 패턴에서 ‘의미적 운율’을 확인할 수 있다 (23ㄷ)에서 ‘겪다’의 논항은 ‘물난리’인데, ‘겪다’의 논항으로는 대체로 ‘가뭄, 전쟁, 고통...’과 같은 부류가 선호된다. 코퍼스에 나타난 이러한 선호 경향을 통해, ‘겪다’가 포함된 구성이 “〈어려운 상황〉을 겪다”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어휘 부류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23ㄴ)에서는 ‘잠을 이루다’가 부정적 요소와 결합한다는 경향성²⁴⁾을 포착할 수 있다. 이처럼 의미적 운율이 어휘 결합 구성의 포괄적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면, ‘의미적 운율’ 또한 결합적 특징으로 포착해 사전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25) ‘겪다’에 대한 사전의 기술

- ㄱ. 『고려대』
 - ① 기본의미 (사람이 일을) 당하여 치르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는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유의어: 경험하다 거치다¹ 치르다 먹다¹ 체험하다 맛보다
- ㄴ. 『표준』
 - ①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

두 사전의 기술 내용을 보면, 해당 표제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통계적 근거가 분명하다면, (24ㄱ-ㄴ)에서처럼 ‘긍정성’과 ‘부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형식화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식화는 감성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감성 분석 사전(sentiment lexicon)의 구축과도 연동되는 문제²⁵⁾인데, 감성 정보를 포함하여 의미 기술을 정밀화하는 것은 언어 사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4) 이와 관련한 논의는 강범모,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 36, 2011, 1~23쪽; 남길임,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298, 2012, 135~164쪽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5) 감성 표현과 감성 분석 사전에 대해서는 남길임·조은경,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51~58쪽 참조.

2. 논항 관계와 프레임²⁶⁾

결합 관계 중 언어 관계가 언어사전에서 제한적으로 반영된 데 비해, 논항 관계는 언어사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이는 논항 관계가 문형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되는 정보이고, 문형 정보는 근대 사전에서 중요한 미시구조 정보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 (26) ㄱ. 그가 책을 샀다.
 ㄴ. 그가 서점에서 책을 만 원에 샀다.

위의 두 예문에 대해 국어사전에서는 ‘NP1이 NP2를 사다’와 같은 하위범주화 틀을 ‘사다’의 문형 정보로 제시하면서, ‘서점에서’, ‘만 원에’ 등은 부가어로 취급한다. ‘NP2’의 위치에서 ‘사다’와 결합하는 ‘책’은 사는 행위의 대상물이라는 점에서 국어사전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태의 대상이 되는 명사의 의미부류에 따라 서술어의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사전의 전통적인 의미 기술 방식이다.

(27) ‘사다’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 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권리를) 값을 치르고 자기 것으로 만듦다. 『할머니께서는 집에 오는 길에 제과점에 들러 팔빵을 사 오라고 하셨다.
- ②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지도록 하다. 『괜한 말을 해서 그에게 반감을 사고 말았다.
- ③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을) 대가를 치르고 부리다. 『사람을 사서 모내기를 하도록 합니다.
- ④ ((‘높이’와 함께 쓰여)) (사람이 대상물, 또는 그 대상의 장점을) 그 가치를 인정하다. 『나는 자네의 그 패기를 높이 사는 바이네.
- 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주어서 마련하다. 『아내는 장에 가서 쌀을 팔아서 돈을 샀다.
- ⑥ ((주로 ‘사서’의 꼴로 쓰여)) (사람이 고생을) 일부러 하다. 『이 일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 ⑦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음식 따위를) 함께 먹기 위하여 값을 치르다. 『오늘은 내가 너 희들한테 술 한잔 살게.

그런데 의미항목 ②와 ⑦은 ‘NP1이 NP2를 사다’와 같은 하위범주화 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형을 보여준다. ②와 ⑦에서 ‘에게(한테)’에 붙어 실현되는 논항의 의미와 역할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항목 ②와 ⑦에 제시되는 문형에서는 ‘_에게’ 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표시하게 된다.

26) 프레임을 기반으로 어휘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는 본고의 논의는 최경봉, 「구문과 어휘의미의 상관성 고찰」, 『국어학』 89, 2019, 259~263쪽의 논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어휘의미와 구문의 상관성은 하위범주화의 틀보다 경험 지식을 반영한 사태의 프레임을 통해 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다. 사태의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 요소를 환기하고 이를 통해 구문을 이해하는 것은, 서술어의 의미구조가 구문 구조로 투사된다는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레임으로 문장을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한데, ‘상거래’의 프레임에서는 ‘상품’과 같은 필수논항뿐만 아니라 ‘판매처’, ‘판매자’, ‘가격’ 등과 같은 부가어도 프레임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프레임 요소들은 각각 경험 지식으로서의 프레임을 지닌다. 즉, ‘서점’에 대한 우리의 경험 지식은 “서점에는 팔 [책]을 전시하고 있고, [구매자는] [서점에서] [판매자에게서] 책을 산다.”처럼 프레임화되었기 때문에 (26ㄴ)의 ‘서점에서’가 ‘장소’이면서 ‘판매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②처럼 정서적 상호작용을 상거래로 개념화하는 은유표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미 해석을 유도하게 된다.²⁷⁾

이처럼 프레임을 기반으로 문장에서의 결합 관계를 파악할 경우, 프레임 요소가 특정 논항으로 전경화되거나 후경화되면서 통사구조가 달라지는 양상을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문장의 생성과 해석에서는 프레임 요소의 선택과 더불어 선택된 프레임 요소의 속성과 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실질적으로 의미항목의 구분은 프레임 요소의 속성과 작용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항목 ⑦은 프레임 요소의 속성과 작용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 (28) ㄱ.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커피 한잔 살게.
 ㄴ.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밥을 샀다.

위의 예문에서 ‘너희들한테’와 ‘친구들에게’란 논항은 의미항목 ①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란 논항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9) ㄱ. 나는 친구에게 밥을 샀다.
 ㄴ. 나는 친구에게 책을 샀다.

위의 두 문장은 ‘돈을 지불하여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29 ㄱ)에서 ‘친구’는 ‘나와 함께 구입물을 공유하는 사람’이고, (26ㄴ)에서 ‘친구’는 ‘판매자’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사다’ 프레임에서 ‘밥’과 ‘책’이라는 프레임 요소의 속성과 작용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사다’의 프레임에서 ‘밥’이라는 프레임 요소의 속성과 작용을 고려하면 (28ㄴ)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8ㄴ')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서 (친구들에게 대접했다).

27) ‘반갑’이란 감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인 ‘반갑’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것이다.

경험 지식상 ‘사다’ 프레임에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에 따른 ‘수혜자’도 설정될 수 있는데, 그 ‘수혜자’는 구매자 자신일 수도 있고 주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다’ 프레임이 (28ㄴ)의 문장에서 (28ㄴ)의 의미를 유추하는 데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사다’ 구문에서는 ‘수혜자’가 후경화되지만, (28)처럼 ‘본인이 돈을 지불하여 취한 결과를 공유하는 수혜자’가 있을 경우는 ‘구매 결과를 공유하는 수혜자’가 전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구매 결과를 공유하는 수혜자’가 설정되는 경우는 식당 등에서 조리된 ‘음식물’이 상품으로 설정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사다’ 프레임과 그 요소인 ‘밥’의 프레임²⁸⁾ 간 상호작용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를 보면 프레임을 기반으로 결합 관계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은 프레임 요소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포착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사전에서는 사전의 프레임뿐만 아니라, 프레임 요소로 작용하는 어휘의 의미 기술에서도 해당 어휘의 프레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미 기술, 용례, 관련어 정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30) 『표준』에서의 의미 기술

- ㄱ. 밥 ①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날알이 풀어지지 않고 물기가 잦아들게 끓여 익힌 음식. / ② 끼니로 먹는 음식.
 ㄴ. 커피 ① 커피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 (...) / ② 커피 가루를 끓인 물에 타서 마시는 차.

위의 풀이에서 (30ㄱ)의 ‘밥①②’에는 ‘먹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30ㄴ)의 ‘커피②’에는 ‘마시는 대상’이란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기술은 ‘밥’과 ‘커피’가 ‘먹거나 마시는 행위’와 연동됨을 나타내고, 이는 (28)에서와 같은 의미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밥’과 ‘커피’에 대한 경험지식으로서의 프레임을 고려하면, ‘밥, 커피’는 ‘누군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밥(커피)을 만들다’나 ‘누군가 차린 밥(커피)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먹다’ 등의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는 용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엌’, ‘밥솥’, ‘커피머신’, ‘요리사’, ‘바리스타’, ‘식당’, ‘카페’, ‘식탁’, ‘테이블’ 등의 프레임 요소가 사전의 용례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프레임 요소의 관계망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이를 사전의 관련어 정보로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계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존 사전에서의 관련어와는 다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프레임에 기반한 관계망은 기존의 관련어 정보와는 구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레임에 기반한 관계망의 제시 방식과 관련해서는 (13)을 통해 보여준 『물명고』에서의 관련어 제시 방법이나 화제(topic) 의미 관계²⁹⁾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8) 우리의 경험 지식에서 ‘밥’은 함께 먹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공자가 차린 밥을 어디에서 수혜자와 함께 먹다’가 ‘밥’의 프레임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9) 화제 의미 관계는 하나의 화제 아래에서 자주 공기하는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령 ‘병원’은 그와 자주 공기하는 ‘환자, 의사, 의료, 치료, 수술’ 등과 화제 의미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강범모, 『한국어 명사의 화제 의미관계와 네트워크』, 한국문화사, 2017 참조.

IV. 은유적 개념화를 통한 관계망의 형성과 사전

1. 사전에 기술된 의미항목 간 관계 양상

다의어의 의미 항목들은 다른 어휘 항목과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의미망에서는 독립적인 어휘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우리말샘>의 표제어 처리 방식은 어휘의미망의 구축 방법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모어화자들은 이러한 의미 항목들을 동음어처럼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 사전에서는 의미 항목 간의 연관성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다의 항목의 관계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해당 어휘 항목의 의미 속성에 대한 모어화자의 인식 양상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31) '손'에 대한 『표준』의 기술

- 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손등, 손바닥, 손목으로 나뉘며 그 끝에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어, 무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한다. ❶손으로 잡다.
- ② 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부분. 또는 그것 하나하나. ❶손에 반지를 끼다.
- ③ 일을 하는 사람. ❶손이 부족하다.
- ④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❶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 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❶손에 넣다.
- ⑥ 사람의 수완이나 피. ❶장사꾼의 손에 놀아나다.

위에서 ①과 ②는 '손'의 의미 속성, 즉 '손'의 작용역 중 '형상'과 '구성' 그리고 '기능'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역은 문맥과 조응하여 활성화되는데, 이는 '손'과 부분전체 관계를 맺는 어휘들의 의미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인되는 의미 항목 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봤던 '나무'의 작용역에 따른 문맥 내 의미 작용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손'의 '형상', '구성', '기능'에 대한 인식에 천착하면, '손'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손'이 '팔'의 구성 부분이라는 지식은 '손'을 '팔'의 의미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³⁰⁾ 이는 비유 표현 중 환유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31)을 보면 ③~⑥의 의미항목 간 관계망은 ①~②의 의미 항목 간 관계망과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③~⑥까지의 관계가 ①~②의 관계와 달리 예측이 쉽지 않은 이유가 된다. 즉, ①~②의 의미적 관계는 환유적 전환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면, ③~⑥의 의미적 관계는 은유적 전환에 의해 형성된 관계라 할 수 있다.

30) (31)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손을 번쩍 들다."라는 문장에서 '손'이 '팔'과 대응되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작용이다. 실제 '손'과 '팔'의 연관성은 '손목시계'와 '팔목시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은유적 전환에 의해 형성된 의미 항목 간의 관계망은 환유적 전환에 의한 관계망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환유적 관계가 (31)의 ①에 제시한 뜻풀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접성에 기반한 것이라면, ‘손’이 ‘사람’, ‘힘(노력)’, ‘기술’, ‘영향력 범위’, ‘피’ 등과 맺는 의미적 관계는 근원영역인 ‘손’의 속성 정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 속성의 은유적 전환은 목표영역을 근원영역의 관점에서 개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는 목표영역의 의미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31)에서 ③-⑥까지의 의미 확장은 은유적 개념화에 따른 의미 확장이다. ③의 경우는 ‘부분(손)’으로 ‘전체(사람)’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환유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근원영역(손)’으로 ‘목표영역(노동력)’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은유적 개념화에 의한 의미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을 반영하면 의미 항목 간 관계망도 복잡하게 형성될 것이다.

2. 의미 속성의 은유적 전환과 관계망

은유적 개념화는 인간의 보편적 인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해당 언어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관계망’은 인간의 보편적 인식을 설명하거나 특정 언어권의 문화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아래의 은유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어 은유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계망을 정리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32)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예시³¹⁾

	A	B	E	F	G	H	I
1	분류어	표현	유형 근원 영역	목표 영역	주제어	출처	
1131	꽃	꽃 본 나비 (꽃 본 기러기)	1 꽃	사랑하는 대상	연인	표준	
1132	꽃	평년 27세 ‘꽃이 지다’	2 꽃이 지다	죽다	죽음	비즈앤디, 2017.12.19	
1133	꽃	나 머리에 꽃 담았다. 정들 놔	2 꽃을 담다	미지다	광기	http://blog.nave	
1134	꽃	푸른 하늘에 꽃 같은 새를 날려	3 꽃	새	새	우리교육 중등 용 95년 1월호 미주중앙일보, 2014.04.28.	
1135	꽃	그때 백제의 꽃이 피었다.	2 꽃이 피다	전성기를 이루다	황금기	표준	
1136	꽃	그녀는 우리 회사의 꽃이었다	1 꽃	아름다운 여성	여성	표준	
1137	꽃	올림픽의 꽃	1 꽃	중요한 것	사물	국립극장 매거 진 미르, 2017.09.01.	
1138	꽃	꽃 본 나비 담 넘어가라	1 꽃	사랑하는 대상	연인	표준	
1139	꽃	꽃 본 나비 불을 헤어라	2 꽃 본 나비 불을 헤어라	남녀 간의 정이 깊으면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나눈다.	열정	표준	
1140	꽃	꽃은 꽃이라도 호박꽃이	1 호박꽃	못생긴 여성	여성	표준	
1141	꽃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2 꽃은 목화가 제일이다	겉치레보다는 실속이 중요함.	실속	표준	

위의 은유 데이터베이스는 은유 표현에서 ‘분류어, 근원영역, 목표영역, 주제어’를 추출하여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서 ‘분류어’는 근원영역의 핵심어를, ‘주제어’는 목표영역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은유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근원영역이 관여하는 목표영역의 관계망’을 파악할 수도 있고, ‘목표영역에 따른 근원영역의 관계망’을

31) 도원영 외,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61, 2018, 73쪽.

파악할 수도 있다.

(33) 목표영역과 근원영역의 관련 양상 예시

- ㄱ. 해결(책) = 길을 뚫다, 봉합, 수술, 숨통을 틔우다, 실타래를 풀다, 처방전…
- ㄴ. 계획 = 각본, 그림, 덧, 큰 그림…
- ㄷ. 거짓 = 나이롱, 소설, 쇼, 연극…

은유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33)의 관계망은 목표영역 및 주제어를 나타내는 표현(해결, 계획, 거짓…)의 관련어 정보와 근원영역 및 분류어를 나타내는 표현(길을 뚫다, 각본, 나이롱…)의 관련어 정보를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샘〉에서는 ‘해결’의 상위어로 ‘처리’를 하위어로는 ‘통찰, 자결, 청산, 우회로, 진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33ㄱ)의 은유적 관계망을 활용할 경우, ‘해결’의 하위어로 ‘길을 뚫다, 봉합, 수술…’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봉합’의 관련어 정보³²⁾도 확장되는데, ‘봉합’의 상위어로 ‘해결’을 비슷한말(또는 참고어휘)로는 ‘길을 뚫다, 수술, 숨통을 틔우다…’ 등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원영역에 해당하는 어휘의 계열적 관계망은 목표영역에 해당하는 어휘의 계열적 관계망과 혼성되어 은유 표현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서의 계열적 관계망을 포착하는 것은 은유표현의 생성과 해석 원리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에 따라 은유 표현의 생성과 해석 양상을 의미장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논의에서는 ‘근원영역의 의미장이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면서 목표영역의 의미장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개념 은유의 도식은 여러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개념 은유 도식의 확장과 근원영역 의미장의 상호작용 양상을 정리하는 것은 어휘 정보를 정교하게 기술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가령 〈밋밋하다=특징이 없다〉라는 개념도식은 〈밋밋하다=재미없다〉, 〈밋밋하다=맛없다〉 등의 개념도식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밋밋하다’가 포함된 〈사물의 굴곡〉 의미장은 ‘내용’, ‘성격’, ‘맛’ 등의 평가와 관련된 의미장과 상호작용하여 은유 표현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물의 굴곡〉 의미장에서 이루어지는 ‘울퉁불퉁하다, 들쭉날쭉하다, 밋밋하다…’ 등의 관계망은 ‘울퉁불퉁한 삶’, ‘울퉁불퉁한 성격’, ‘들쭉날쭉한 맛’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 ‘성격’, ‘맛’ 등의 평가라는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 양상을 정리하면, 어휘의 관계망을 전제로 어휘의미를 기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4) ‘밋밋하다’에 대한 『표준』의 기술

- ① 생김새가 미끈하게 곧고 길다.
- ② 경사나 굴곡이 심하지 않고 평평하고 비스듬하다.
- ③ 생김 모양 따위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

32) 〈우리말샘〉에서는 ‘봉합’의 상위어로 ‘맞춤’을, 비슷한말로 ‘스테이플링, 껌뻐’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의미 기술을 보면, 의미항목 ③이 은유적 개념화에 따른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만, ‘굴곡’에서 ‘내용, 성격, 맛’으로 개념도식이 확장되는 데 따른 관계망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표준』보다 『고려대』의 기술 내용이 개념도식의 확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5) ‘밋밋하다’에 대한 『고려대』의 기술

- ① (무엇이) 생김새가 튀어나온 곳 없이 미끈하게 곧다.
- ② (지형이) 굴곡이나 경사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평평하며 비스듬하다.
- ③ (무엇이)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

『고려대』의 기술 내용에 어휘의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③의 의미에 제시된 ‘무엇’을 세분하여 하위 의미항목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용’의 평가에서 ‘밋밋하다’는 ‘재미없다, 따분하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등과 관계망을 형성함을 반영하고, ‘맛’의 평가에서 ‘밋밋하다’는 ‘맛없다, 밍밍하다, 싱겁다, 맛있다, 맛깔나다’ 등과 관계망을 형성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국어사전에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사전의 미시구조 전반에 어휘 관계망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존 국어사전의 미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장에서는 계열적 관계망 정보의 반영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분류학적 관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계 차원의 확장 문제를 논의하고, 확장된 분류 관계를 근거로 뜻풀이에서의 의미 분할 원리를 제시하였다. 명사 어휘에서는 ‘형상, 구성, 기능, 작인’ 등의 분류 관계가 제시되었고, 동사 어휘에서는 상적 특성과 사건 유형에 따른 분류 관계가 제시되었다. 2절에서는 위계적인 분류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활용영역’을 보여 줄 수 있는 어휘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활용영역’의 관계망을 근거로 관련 어와 뜻풀이를 정교하게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결합적 관계망 정보의 반영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언어 관계에서 포착되는 어휘 간 선택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어휘의 부류에 따른 어휘 간 상호 선택 양상과 더불어 개별 어휘 간의 상호 선택 패턴을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절에서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결합 관계 양상을 사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프레임 요소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포착하여 사전에 반영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Ⅳ장에서는 은유적 개념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어휘의 관계망을 사전에 반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1절에서는 사전의 의미 항목 간 연관성을 기술하는 차원에서 다의 항목의 관계망을 파악할 필요성을 거론하

면서, 환유적 전환에 의해 형성된 관계망과 은유적 전환에 의해 형성된 관계망으로 나누어 의미항목 간 관계망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2절에서는 은유 표현에서 근원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가 목표 영역의 의미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원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와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어휘의 관계망을 포착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더불어 근원영역의 의미장이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면서 목표영역의 의미장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반영하여 뜻풀이와 관련어 정보를 정교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강범모,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 36, 2011.
- 강범모, 『한국어 명사의 화제 의미관계와 네트워크』, 한국문화사, 2017.
- 김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어 정보와 어휘관계 기반 사전 기술」, 『한국어어미학』 24, 2007.
- 김진해, 「언어 연구의 의미론적 함의 - 목록과 경향 사이에서 -」, 『국어학』 68, 2013.
- 남길입, 「어휘의 공기 경향성과 의미적 운율」, 『한글』 298, 2012.
- 남길입 · 조은경,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도원영 외, 「은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론」, 『한국어 의미학』 61, 2018.
- 박만규, 「다의어의 의미 분할과 의미 부류」, 『한글』 257, 2002.
- 옥철영, 「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의 개념과 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17: 3, 2007.
- 옥철영, 『어휘의미 체계 기반 입체적 국어사전 확장』, 국립국어원, 2009.
- 유희정 · 최경봉, 「동물 부위 은유의 특징과 작용 원리」, 『한국어어미학』 68, 2020.
- 윤애선, 「국내외 어휘의미망의 구축과 활용」, 『새국어생활』 17: 3, 2007.
- 윤애선, 「한국어 어휘의미망 KorLex 2.0 - 의미 처리와 지식 공학을 위한 기반 언어 자원 -」, 『한글』 295, 2012.
- 이동혁, 「의미 범주 체계의 구축과 사전에서의 활용」, 『한국어 의미학』 24, 2007.
- 이동혁, 「사전과 어휘의미망에서의 의미 기술」,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이성현, 「전자사전 구축과 의미부류 - 세종 명사 의미부류 체계의 예」, 『한국사전학』 5, 2005.
- 이성현, 「세종 전자 사전의 어휘 의미 부류 체계」, 『새국어생활』 17: 3, 2007.
- 임근석, 「한국어 언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61, 2011.
- 임채훈, 『사건 발화상황 그리고 문장의미』, 역락, 2012.
- 임홍빈 · 임근석,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구축분과 언어사전의 정보구조와 기술내용」, 『한국사전학』 4, 2004.
- 정원용, 「은유의 의미와 구조」, 『논문집』 17: 1, 경성대학교, 1996.
- 차준경 · 임해창, 「어휘의미망의 형태 의미 관계 설정 - 국어의 사건 명사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34, 2010.

최경봉, 「은유 표현에서 어휘체계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학』 15, 2002.

최경봉, 「'물명고(物名考)'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어미학』 17, 2005.

최경봉, 『어휘의미론 - 의미의 존재 양식과 실현 양상에 대한 탐구』, 한국문화사, 2015.

최경봉, 「한국어 단어 단위와 의미 - 의미 단위의 인지적 실체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77, 2017.

최경봉, 「구문과 어휘의미의 상관성 고찰」, 『국어학』 89, 2019.

최경봉 · 도원영,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상위온톨로지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28, 2005.

한정한 · 도원영,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한 어휘의미관계 유형」, 『한국어학』 28, 2005.

황순희, 「인지동사의 의미분류와 어휘의미망 표상」, 『언어연구』 26: 2, 2010.

Boas, Hans C.(ed.), *Multilingual FrameNets in Computational Lexicography*, Mouton de Gruyter, 2009.

Durkinn, Philip, *The Oxford Handbook of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Sinclair, J. M.,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Routledge, 2004.

Trim, R., *Metaphor Networks: The Comparative Evolution of Figurative Langua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Voessen, Piek, *EuroWordNet: A Multilingual Database with Lexical Semantic Network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한정한 외 역, 『유로워드넷』, 한국문화사, 2004.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22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월 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Recognition of Lexical Semantic Network and Composition of Dictionaries**

Choi, Kyeongbong*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patterns of language users on the lexical semantic network and discussed the problem of reflecting them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Korean dictionary.

In Chapter II, the problem of reflecting the information on the paradigmatic relation network was discussed. In Section 1, the limitations of the taxonomic network were pointed out and the problem of expanding the relational dimension was discussed. In section 2, we discussed ways to reflect the lexical network that can show various 'application areas' beyond the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ystem.

In Chapter III, the problem of reflecting the information on the syntagmatic relation network was discussed. In section 1, we discussed the ways to reflect the mutual selection patterns between individual vocabularies as well as the patterns of mutual selection between vocabular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vocabularies. In section 2, a method to reflect the aspect of the coupling relationship based on the frame in advance was discussed.

In Chapter IV, the problem of reflecting the relational network of vocabulary newly formed through metaphorical conceptualization was discussed. In section 1, the relational network of senses in polysemous word was discussed in order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semantic items in the dictionary. In Section 2, the meaning of capturing the relational network between the vocabulary representing the source domain and the vocabulary representing the target domain in metaphorical expressions was explained.

[Keywords] collocation, lexical semantic network, metaphor network, paradigmatic relation, polysemy, syntagmatic relation

*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